

현장시선



이신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도민이 참여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랜 기간 논의돼 온 내용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도민들의 선택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행정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2계층제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전국 유일한 단층제 지역이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다. 반면, 자치권이 없는 임명직 시장이 관할하는 2개의 행정시로 구성된 단층제 구조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요구들이 표출돼 왔다.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 당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권고했으나 도의회 부결, 민선 6기에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시기까지 보류했고, 민선 7기에는 권고안을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민선 8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했다.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수평적이

고 법률적인 관계로 재정립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의 명사로 강원, 전북, 경기, 충북, 부산 등 타 특별자치도(시) 출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인 경우 기초자치체를 유지한 채로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에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자치권 강화, 풀뿌리 자치 실현, 주민의 행정접근성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선출직 간 갈등, 행정비용 비효율 우려, 정부의 특별자치도 특례보장 불투명에 대한 반대 입장 모두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도 나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에 의해 되는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번 용역과정에서 도민들의 참여기회가 열려있다. 도민들은 3000명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48차례의 도민경청회, 전문가포럼, 2030청년포럼, 도민공청회, 300명의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해 도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모으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투명하고 탄탄하게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하길 바란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도산 안창호선생님의 말이 생각난다. 주체적인 사람은 스스로 참여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제주도의 주인으로 이제 제주의 미래를 직접 선택해야 할 때이다.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부작용 대책도 세워야

명칭도 생소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입이 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형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성범죄 전과자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도내 거주 성범죄자는 42명이다. 이중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는 25명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8명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제주시 동지역과 보육·교육시설 주변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 시 성범죄자 상당수가 읍면·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시설 밀도가 낮은 외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도 시행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지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당국은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외곽지역으로 대거 옮겨갈 경우 주민 반발과 함께 치안 문제 등이 당장 불거질 수 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죄질이 나쁜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집중적인 보호 수용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제도의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 청년보장제 연착륙을 기대하며...

그동안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더불어 미래의 핵심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 둘 씩 추진됐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 청년보장제’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예상대로 주거 안정과 청년인재들을 위한 기업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이 거론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창업하고 결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하나 둘 씩 추진됐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 청년보장제’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학교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예상대로 주거 안정과 청년인재들을 위한 기업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이 거론됐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창업하고 결혼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하나 둘 씩 추진됐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등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래픽 뉴스

Infographic titled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showing the timeline of mask requirements from 2020 to 2023. It details when masks were required on public transport and when they were lifted for various modes of transport like buses, taxis, and subways.

열린마당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강승태 제주시 재산세과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 없네. 뭐든 여럿이 노나 갖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 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까.’ 자연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전우익의 책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처럼 같이 살아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경제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인들이다. 제주시에서도 이러한 임대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343건에 4900만원을 감면

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감면신청서를 받고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로 인하율에 따라 최소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가족 간 임대차계약이나, 유흥주점영업장 등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2022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임대료 감면이 건물주에게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예술가들과 새로운 가게들이 모여들며 활성화됐던 상권이 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인들이다.

그래서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현명한 임대인이라 말해주고 싶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Hanra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address details for the main office and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차고지/주차장' (Garage/Carport) services, highlighting a 90% city subsidy and a No.1 construction company.

Advertisement for '백도라지 분말' (Baekdoraji powder) by Hangeul JK, featuring product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택지, 상가 긴급매각' (Residential/Commercial urgent sal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and contact details.

Advertisement for '토지임대' (Land rental) in Jeju City, offering a 4,123sqm plot with a 2-story building for rent.

Advertisement for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Jeju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showing a satellite and globe.

Advertisement for '묘지후손찾기' (Grave site descendant search) services, offering help in finding descendants for ancestral graves.

Advertisement for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Waterproofing and insulation) services, specializing in urethane and urea products.

Advertisement for '향운철학관' (Hangeuncheolhakwan) offering a course on '향운거사 이방택' (Hangeun Gosa Ilbangtaek) with a fee of 50,000 won.

Advertisement for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Gangjeong-dong cafe and pension land sale) listing various land parcels for sale.

Advertisement for '한라전설(주)' (Hanra Jeonseol Co., Lt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ir services and contact details.